

[TV]

TV 4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V 4월 프로그램 안내표. KBS1, KBS2, MBC, KBC/SBS, EBS 채널별 방송 시간과 프로그램 제목을 상세히 나열한 표.

'칸의 여왕' 전도연, 홍콩서 러브콜

위엔우 감독의 '철혈협' 여 주인공...상대역엔 류더화

올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전도연이 홍콩 스타 류더화(劉德華)와 액션 로 맨스물에 출연하게 될지 모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위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위엔 감독은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때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위엔 감독은 "확실한 것은 한국의 스타와 영화를 찍고 싶다는 것 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나중에 확정되면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엔 감독은 전도연이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 전부터 전도연 측과 협의

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위엔 감독은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때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전도연은 지난 달 30일 서울에서 가진 귀국 기자회견에서 홍콩 기자의 질문에 "중국이나 홍콩에서) 꼭 어떤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은 없고 시나리오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좋은 기회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크린 독과점, 규제로 해결할 일 아니다"

네티즌 45%... "규제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10%p 높아

최근 '스파이더맨3' '캐리비안의 해적3'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극장가를 휩쓸면서 소극리스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스크린 독과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SBS 라디오(103.5MHz) '김여준의 뉴스앤조이'와 영화포털 시네리즌이 최근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스크린 독과점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규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 44.9%,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4.9%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영화 '괴물' 상영 당시 조사와 비교해보면 규제 반대 의견은 5.3%p, 규제 찬성 의견은 1.6%p 가량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극장 관객 주 연령층인 20~30대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 관심을 끌었다.

LIVING TV 세상 속으로 (오후 1시30분) 광고. 색다른 여행을 원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주목하자. 가장 화려한 축제, 늑대와 함께 사는 부부 등 특이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로 세계의 곳곳을 찾아가 본다.

창업25년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앞) (062) 225-9970

케이블·위성TV 4월

케이블·위성TV 4월 프로그램 안내표. YTN, MBN, KTV, MBC MOVIES, OCN, SBS 드라마, MBC Drama.net 등 다양한 채널의 방송 시간과 프로그램 제목을 상세히 나열한 표.

★ 케이블 TV 가입신청 및 문의 080-398-3355(전국공통)

광고 및 후원 정보. KBS PRIME, CH5 KCTV, CH15 CMB 광주방송, BBS 광주불교방송 등 다양한 방송사와 후원처의 정보.